《우리 민족이 살길은 6.15공동선언실천뿐이다》

남조선 각계가 주장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4돐을 맞으며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는 6.15북남공동선언을 리행하여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데 대한 목소리들이 힘차게 울려나왔다.

새정치민주련합 대변인은 《남북정상이 화해와 협력,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다짐한 6.15남북공동선언 14주년이 됐지만 남북의 화해협력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면서 《남북정상과 정부간에 합의한 성명과 선언의 정신을 살리는것만이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7.4남북공동성명과 함께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은 민족번영과 평화를 여는 길》이라며 《새정치민주련합은 남북이 평화를 위해 합의한 성명과 선언의 정신을 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정의당대변인도 론평을 내고 《〈정부〉는 6.15정신을 회복해 평화와 통일을 향한 통 큰 구상을 받아안는 〈정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12일 서울에서는 정계의 여러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6.15남북정상회담 14주년 기념식》이 진행되였다. 기념식에 참가한 김대중전 《대통령》의 부인은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정책에 많은 기대를 했지만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신과 반목이 커지고있을뿐》이라며 《〈한〉반도평화를 이루는 길은 오직 6.15선언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였다.

남조선의 여러 사회단체들, 통일운동단체들도 6.15북남공동선언발표 기념일을 맞으며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5일 오후 서울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4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6.15공동선언을 죽인것은 리명박, 박근혜〈정권〉》이라고 규탄하면서 《남북공동행사를 불허하고있는 〈정부〉를 정말 리해할수 없다.》, 《이제라도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리행하는 길에 나선다면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것》, 《분단 70년이 대결로 얼룩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온 겨레에게 공동번영의 희망을 가져다줄수 있는 제2의 6.15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보다 앞서 13일 서울에서는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와 11개 통일단체가 공동주최한 《6.15남북공동선언 14돐기념행사》가 진행되였다.

행사에 참가한 《남북경협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늘부터 6.15남북공동선언이 되살아나도록 6.15정신을 가슴에 새기자》고 강조하였다.

한 통일운동단체 대표는 하나의 조선, 통일조선을 세계가 알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통일손수건》을 만들어 소개하기도 하였다.

행사에는 전 통일부 장관도 참석하였는데 그는 무대에 올라 6.15북남공동선언발표 당시를 회상하면서 현 집권자가 7.4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3대원칙을 지키고 6.15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할것을 촉구하였다.

이밖에도 6.15공동선언발표 14돐을 맞으며 1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산하 학술본부와 언론본부가 모임을 열고 각각 결의문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결의문과 성명서는 《우리 민족이 살길은 6.15공동선언실천뿐》이라고 하면서 박근혜《정부》가 하루빨리 6.15공동선언으로 돌아가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길로 나설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6.15시대에 이룩된 북과 남의 언론교류성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남좋은 일만 시켜주는 〈5.24조치〉를 해제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에 나서 전면적인 접촉과 교류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진행된 《통일모내기》사업, 서울에서 진행된 《6.15공동선언계승, 발전을 위한 걷기행사》 등 남조선 각지에서 6.15북남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이번에 6.15를 맞으며 남조선에서 진행된 각종 행사들은 박근혜《정권》의 동족대결정책을 반대하고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리행하여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의 날을 앞당겨오려는 남녘인민들의 지향이 막을수 없는 대세로 되고있음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리 경 순

6.15공동선언발표 14돐을 맞으며

기념토론회 도꾜에서 진행

6.15공동선언발표 14돐 기념토론회가 13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일본지역위원회(6.15일본지역위원회)의 주최로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손형근 6.15일본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손형근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박근혜《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규탄과 비난이 쏟아지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가는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는것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기념행사 진행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4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3일 중국 심양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 일군들, 심양에서 사는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먼저 6.15북남공동선언 전문이 랑독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우리 민족끼리 리념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감명깊게 보여주는 우리 나라 영화를 감상하였다.

6.15공동선언발표 14돐기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시 및 노래경연회가 진행되였다.

출연자들은 합창 《통일 6.15》, 중창 《통일아리랑》, 《우리는 하나》, 《통일무지개》, 독창 《통일아 통일아》, 시랑송 《우리의 6.15지키자》, 《6.15통일시대를 그리며》 등을 통하여 6.15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운동을 드세게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경연회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끝났다.

경연회가 끝난 다음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발언하였다.

한편 6.15공동선언발표 14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각 지구협회, 지부들에서도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로씨야고통련에서 기념모임 진행

6.15공동선언발표 14돐에 즈음하여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가 14일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기념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에는 로씨야고통련 성원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김칠성 로씨야고통련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북남수뇌상봉이 진행된 때로부터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면서 이 나날 온 겨레는 6.15공동선언이 얼마나 정당하고 실천적인 통일강령인가를 절감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어 그는 조국통일3대헌장과 6.15공동선언의 내용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안향진 로씨야고통련 부위원장이 발언하였다.

이어 동포들은 통일주제의 노래들을 부르고 춤을 추면서 6.15를 뜻깊게 기념하였다.

재미동포들 기념행사 진행

6.15공동선언발표 14돐에 즈음하여 재미동포들이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기념행사들을 진행하였다.

14일 로스안젤스에서 재미동포들이 6.15공동선언발표 14돐기념식을 가지였다.

기념식에서 발언자들은 온 겨레가 통일에 대한 희망에 넘쳐 환호를 터치던 14년전 6월의 감격은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하면서 6월 15일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중한 날이라고 말하였다.

6.15공동선언은 통일의 목표와 원칙, 실현방도를 밝혀주는 리정표라는것을 명심하고 온 겨레가 6.15공동선언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자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지금은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 때다》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15일 뉴욕의 재미동포들도 기념행사를 가지고 통일의지를 과시하였다.

재유럽동포들 기념행사 진행

재미동포인터네트신문 《민족통신》에 의하면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4돐에 즈음하여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6.15유럽지역위원회)가 14일 도이칠란드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6.15유럽지역위원회 상임대표 리지숙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강조하였다.

박근혜의 정책은 대결과 전쟁정책이라고 단죄하였다.

특히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로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한 때에 미국상전 오바마를 서울에 끌어들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연장을 애걸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신랄히 비난하였다.

이어 조국통일범민족련합 해외본부 의장 림민식을 비롯한 동포인사들이 《박근혜의 〈통일정책〉의 문제점》, 《〈세월〉호참사와 남조선사회의 문제점》, 《조선반도정세분석》 등의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결의문이 랑독되였다.

결의문은 유럽지역동포들은 6.15공동선언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민족평화통일방안임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통일문제를 풀어나갈 때 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우리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확고하고 명백한 진리를 외면하고 남조선당국은 외세에 매달려 공조를 꿰치며 《북핵폐기》망발만 되풀이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박근혜가 대결정책을 철회하고 모든 전쟁연습을 중단하며 민간통일운동을 보장하고 《5.24조치》를 해제할것을 요구하였다.

결의문은 해외의 모든 동포들이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국애족단체들과 굳게 련대하여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이것이 과연 《신뢰》인가

옛말에 고양이가 얼굴은 좁아도 부끄러워할줄 안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분명 사람은 사람이나 잘못한것에 대한 부끄러움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쉴새없이 동에 닿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있는자들이 있으니 남조선집권자들이 바로 그러하다.

며칠전에도 남조선집권자는 통일부 장관과 《새누리당》인물들을 내세워 그 무슨 《신뢰》요, 《호상존중과 화해, 협력》이요 뭐요 하면서 귀간지러운 소리를 연방 해대였다.

지난 《대선》에서 《신뢰》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해결하겠다고 흰소리를 친 박근혜는 집권하여서는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요, 《드레즈덴선언》이요 뭐요 하는것과 같은 《대북정책》들에서 《신뢰》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있다.

기회만 있으면 북남간의 《신뢰》를 즐겨 외우는 남조선집권세력이 뒤에 돌아서서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새해벽두부터 그 무슨 《단호한 응징》이니, 《북 급변사태대비》니 뭐니 하면서 도발적망발을 서슴지 않았으며 외세와 야합하여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을 강행하였다.

그런가하면 북과 남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한다는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언론의 자유》를 코에 걸고 북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비방에 열을 올리였다.

그것도 모자라 공화국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걸고들면서 《북인권사무소》라는 반공화국모략기구를 남조선에 끌어들이기로 하였으며 어중이떠중이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비방과 대결에로 부추기였다.

동족대결의 추악한 행위는 국제무대에서도 물론 례외가 되지 않고있다.

그 못된 언행을 집안에서만 하는것이 무척 아쉬운 모양인지 박근혜는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은 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반공화국대결놀음에 여간 품을 들이지 않았다.

지난 3월 도이칠란드의 드레즈덴에 찾아간 그는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걸고들면서 《핵을 버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도발적망언을 늘어놓았는가 하면 최근 중앙아시아나라들에 대한 행각에서도 《북핵포기》니, 《변화》니 뭐니 하면서 공화국의 로선과 정책을 비방중상하였다.

보수당국패거리들도 앞을 다투어 《북핵위협제거》요, 《급변사태대비》요 하면서 목청을 돋구고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이 박근혜가 떠드는 《신뢰조성》, 《호상존중》, 《화해와 협력》의 진면모이다.

동족을 불신하고 적대하며 북과 남이 합의한 공동선언들의 리행도 한사코 거부하는 박근혜패당의 집요한 동족대결정책에 의해 북남관계는 파국의 위험에 처해있다.

박근혜는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고있는가를 똑바로 보고 앞뒤가 다른 말과 행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김 명 성

통일운동의 강화를 주장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와 민주로총, 《통일광장》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이 12일 서울에서 집회를 가지고 통일운동을 적극 벌려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민족분렬 55년만에 우리 민족끼리를 리념으로 하는 6.15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고 하면서 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남측의 련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한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점을 분명히 밝혀주고있다고 주장하였다.

통일운동을 강화하고 그 열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로동자들로 통일선봉대를 구성하여 투쟁을 벌려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로동자 통일선봉대는 통일에 대해 《대박》이니 뭐니 하고 떠들어대는 박근혜《정부》에 타격을 가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언리행에 나서야

지난 15일 남조선의 《새누리당》은 대변인을 내세워 《통일문제의 자주적해결, 북남간의 인도주의적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발전 등을 천명한 6.15공동선언의 정신은 본받아야 마땅하다.》, 《6.15공동선언정신을 이어받아 대화, 협력의 남북관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그런가하면 12일에는 통일부 장관 류길재가 서울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4돐기념식에 나타나 《6.15공동선언은 북남정상간 첫 회담을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저들이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고 그 리행을 한사코 가로막아온 남조선당국과 《새누리당》 패거리들이 감히 6.15북남공동선언의 《존중》이요 뭐요 하며 희떠운 소리를 줴쳐대는것은 참 가소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얼핏 듣기에는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6.15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고 그를 리행하기 위하여 애를 써온것처럼 들릴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보수패당이 운운한 《존중》이니 뭐니 하는 침발린 소리들은 흑백을 전도하고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조국통일을 그 주인인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겨레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데 대한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핵으로 하는 북남공동선언을 남조선당국은 지난 시기 어떻게 대해왔는가.

멀리가지 않더라도 얼마전 남조선보수당국은 공화국이 6.15공동선언발표를 계기로 제의한 개성에서의 민족공동행사를 전면거부하였다.

그들이 운운한 《존중》이라는 말이 진심이라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모여 진행하는 6.15북남공동선언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가로막을 하등의 리유가 없을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뒤에서는 6.15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행사들을 《정치적 행사》라는 미명하에 가로막고 앞에서는 그 여운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귀간지러운 소리를 늘어놓으니 이것이야말로 족제비도 낯을 붉힐 추태인것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남조선당국은 외세공조에 매여달리면서 민족분렬의 원흉인 미국과 야합하여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였으며 얼마전에는 그 무슨 《국제공조》를 떠들면서 있지도 않는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여론화하다 못해 《북인권사무소》라는것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기로 하는 반민족적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통일을 함께 이루어나가야 할 겨레의 손길을 뿌리치고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과 북침전쟁소동에 악랄히 매달리는 남조선보수당국에게 진정으로 6.15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아무리 낯가죽이 두꺼워도 분수가 있지 흑백을 전도하며 거짓말을 밥먹듯 해대는 남조선당국의 행위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인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마치 6.15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는것처럼 놀아대고있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저들이 통일에 관심이 있는듯이 여론을 외곡하여 겨레를 우롱하고 기울어져가는 잔명을 조금이나마 연장해보려는 음흉한 속심에서부터 출발한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마음이 꼬물만큼이라도 있다면 반민족적인 동족대결정책을 벌리고 진정으로 북남공동선언리행의 길에 나서야 할것이다.

성중삼

집권안보와 장기집권을 노린 음모

지난 16일 남조선의 《국회의장》인 정의화가 서울에서 열린 《세계기자대회개막식》에서 온당치 않게 북을 걸고들며 횡설수설했다.

그는 《〈한〉국은 북을 공격할 의사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하였는가 하면 《북이 〈한〉반도비핵화를 외면하는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훈시비슷한 말도 하였다.

지어 통일후 그 누구에 대해 《용서와 화해의 길을 택할것》이라는 낯도깨비같은 수작도 늘어놓았다.

명색이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술한 내외신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황당한 말을 늘어놓았으니 어이가 없는 일이다.

정의화로 말하면 《국회의원》을 5번씩이나 하고있는 《새누리당》의 《원로의원》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 그가 파연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 현실감각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것이 분명하다.

남조선보수패당이 해마다 외세와 야합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북침핵전쟁공격연습마당으로 만들고있는것이 그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단 말인가.

초보적인 론리적상식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첨단핵공격장비들이 총동원된 전쟁연습을 감싸는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미사려구를 곧이듣는 사람이 없다. 또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의 지휘밑에 유사시를 가상한 《작전계획》이라는것을 계속 갱신하는것은 물론 해마다 천문학적액수의 자금을 쓰면서 첨단전쟁장비들을 개발하고 외국에서까지 사들여오는것은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서란 말인가.

현실이 보여주는것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를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술한 사람들앞에서 해대니 뻔뻔스럽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가 《비핵화》를 운운하면서 누구를 훈시하려드는것도 어불성설이다.

리성이 있는 사람들은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산생하게 된 근본요인인 미국의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중지하고 남조선에 끌어들인 핵무기는 끌어내가는것이 비핵화의 선결조건이라는것을 알고있다.

응당 저들이 해야 할바는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릇된 태도로는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수 없는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화가 내외신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고 북을 헐뜯은 목적은 명백하다. 그것은 저들의 흉악한 《체제통일》속심을 가리우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에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내외여론을 오도해보려는것이다.

그는 《개막식축사》에서 《통일의 기회가 도래될때 그 위기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통일준비〉를 하고있다.》고 력설하였다. 그가 말한 《통일준비》라는것이 북침전쟁과 《체제통일》을 위한 준비라는것은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일방이 타방을 먹어치우는 《체제통일》추구로 초래될것은 민족의 재앙을 가져올 전쟁뿐이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고 남조선보수패당이 제아무리 《통일》이니 뭐니 해도 온 민족은 그들의 대결정체를 송두리채 꿰뚫어보고있다.

정의화가 기자들앞에서 주제넘게 《체제통일》이 다된것처럼 《융어와 화해》에 대해 떠벌였지만 제 처지도 모르는자의 가련한 망상이라 하겠다. 보수패당은 시대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야말 저들의 가련한 처지에 대해서나 심각히 돌이켜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민

《체제통일》의 흉심을 버려야 한다

《세월》호참사로 최악의 위기에 처한 남조선당국자가 최근 청와대와 내각을 개편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국가개조》를 운운하며 위기를 수습해보겠다고 단행하는 개편과정에 박근혜는 정보원 원장 후보자로 일본주재 남조선 대사였던 리병기를 내세웠다.

이를 두고 남조선 각계에서는 《집권안보와 장기집권을 노린 얕은 술수》,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인사참사》라는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세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리병기로 말한다면 1997년 《대통령선거》때에 정보원의 전신인 《안기부》 제2차장으로 《북풍》조작사건에 관여하였고 2002년 《대선》시에는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총재 리회창의 정치특보로서 차떼기사건의 핵심적역할을 한 당사자이다. 이처럼 두차례의 《불법대선사건》에 관여한 공작정치인, 부패정치인 리병기를 정보원 원장후보자로 내세웠으니 남조선 각계가 항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문제는 박근혜가 《부패정치인 1호》로 불리우는 리병기를 왜 정보원 원장후보자로 내세웠는가 하는것이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당국자는 집권하면서 정보원 원장으로 자기의 측근인 남재준을 들여앉혔다. 그것은 무지막지한 군부깡패인 남재준이야말로 정보원이라는 정보기구를 휘둘러 보수세력들이 18대 《대선》때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행위들을 흑막속에 묻어버리고 집권안보를 보장할수 있을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남재준은 정보원 원장으로 있는 기간 정보원과 군싸이버사령부와 같은 권력기관들이 18대 《대선》에서 저지른 온갖 부정행위들의 진실을 가리우고 여론의 이목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해 북남수뇌상봉담화록까지 공개하는 특대형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가 하면 집권세력의 정치적야욕실현과 동족대결을 위하여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과 같은 비렬한 모략놀음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고 남재준이 보수집권세력의 죄행을 가리워보겠다고 날치면 날칠수록 진실은 더욱더 드러났다. 그런것으로 하여 남재준을 파면시킬데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졌다. 더우기는 최근에 정보원이 《세월》호침몰사고에 대해 제일먼저 알고서도 집권안보를 위해 그것을 깔아뭉갠 사실까지 폭로되여 남재준에 대한 인민들의 원성은 극도에 이르렀다.

결국 박근혜는 인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혀보려는 흉심밑에 남재준을 《사퇴》시키고 리병기를 후보자로 내세우는 《인사》를 단행한것이다.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들이 리병기야말로 《정치감각이 높은 사람》, 《정보원 개혁에 적중한 인물》이라고 추어주며 정보원 원장감으로 내세우고있지만 그에 속아넘어갈 민심이 아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남조선인민들은 남재준을 앞에서 무분별하게 날뛰며 파쇼독재강화와 집권안보에 미쳐날뛴 군부깡패로 보았다면 리병기는 지난 시기에 있은 두차례의 불법 《대선》개입사건이 보여주는것처럼 어둠을 좋아하는 도적놈같이 뒤골방에 숨어온갖 반인민적, 반민족적죄악을 저지를 정치사기군, 인간추물로 보기때문이다.

박근혜가 리병기를 정보원 원장후보자로 내세운 진속은 《세월》호사태로 최악의 위기에 처한 저들의 처지를 개선하여 집권안보를 보장하고 나아가서 장기집권의 토대를 닦아놓기 위해서이다.

남조선 각계가 지금 정치공작의 능수인 그가 정보원 원장으로 되는 경우 제2, 제3의 《북풍》사건을 조작하여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것으로 집권안보를 보장하고 나아가서 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다음기 《대선》에까지 불법개입할수 있다고 우려와 불안을 표시하는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보수집권세력들이 리병기를 정보원 원장으로 내세워 파멸에 처한 저들의 위기를 모면해보려 하지만 보수당국의 반역정치에 성난 민심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